

SAMC | LAW REVISION

1. 日, 28일부터 韓 백색국가 제외...관세 인상·비자제한도 거론

일본이 예정대로 28일부터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한다. 예견된 절차이기 때문에 당장 큰 충격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과 불확실성 증가, 수출규제 확대 가능성 등이 커질 것이라는 업계의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27일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개정 수출무역관리령 시행과 관련해 "엄숙히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ad More](#)

2. 수출 中企, '관세 환급액 조정절차' 4단계 → 2단계 축소

수출 중소기업의 관세 환급신청 절차가 크게 줄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환급 신청 시엔 수출물품 생산에 들어간 전체 소요량 파악, 수입 원재료에 대한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산출 등 복잡한 4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수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수출 중소기업에 한해 이러한 '관세 환급액 조정절차'를 2단계로 줄이기로 한 것이다. 관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Read More](#)

3. '아암물류2단지'에 '세관 통합검사장' 신축 예정

인천항 내항과 남항에 몰려있는 세관검사장 및 컨테이너 검색센터를 아암물류2단지로 통합·이전하는 등 대규모 세관 통합검사장과 해상특송물류센터를 신축한다는 밑그림이 나왔다. 계획대로 2022년 준공되면 터미널·세관검사장 간 이동거리 단축으로 화주의 물류비용이 절감되고, 해상 특송화물의 신속 통관이 가능해져 인천항의 물류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천항 세관 통합검사장 신축사업 기본계획」 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Read More](#)

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SAMC)는
정직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AMC | CUSTOMS & TRADE TREND

1. 중국, 750억달러 규모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 부과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과 원유 등 750억달러의 미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오는 9월부터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데 대한 보복 조치로,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23일 미국산 농산물과 원유, 소형 항공기, 자동차 등 5078개의 제품에 대해서 5% 내지 10%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는 품목별로 다음달 1일과 12월15일 두차례에 나뉘져 시작된다.

[Read More](#)

2. 中정부, 수입제한목록에 금속 폐기물 8종 포함

KOTRA 베이징무역관은 중국정부가 올 7월 1일부터 '비제한 고체 폐기물 수입목록'의 금속 폐기물 8종을 '수입제한목록'에 포함시켰다고 8월 22일 전했다. 중국은 1980년대부터 원자재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폐기물을 수입해왔고 오랫동안 세계 최대 폐기물 수입국이었다. 하지만 시진핑 지도부가 '아름다운 중국'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내세우며, 「환경보호법」, 「대기오염 예방관리법」 등 환경법 제도를 갖춰나가면서 중국의 고체 폐기물 수입 규제가 대폭 강화되는 추세다.

[Read More](#)

3. EAEU,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조치 확정

EAEU(유라시아경제연합)가열연제품의 무관세 쿼터 물량을 늘리는 등 완화된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조치를 확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러시아 등 5개국으로 구성된 EAEU가 올 12월부터 1년간 열연제품에 대해 쿼터를 부과하고 냉연 및 도금제품은 조치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조치를 발표했다고 8월 9일 밝혔다. EAEU는 美 철강 무역확장법 제232조 및 EU 철강 세이프가드에 따른 잉여물량의 역내 유입을 우려해 지난해 8월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했다.

[Read More](#)

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SAMC)는
정직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AMC | FTA TREND**1. 韓-英 FTA 정식 서명...11월 전 발효 목표**

우리나라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대비한 영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했다. 한-EU FTA 수준으로 체결해 무역 불확실성을 제거하면서 향후 시장 개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대(對)영국 교역액은 131억7000만달러로, 영국은 우리나라의 19위 교역국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엘리자베스 트리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이 영국 런던에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했다고 22일 밝혔다.

[Read More](#)**2. 한·중미 FTA 국회 비준 완료 ... 10월 1일 발효**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미 FTA 국내 절차 완료를 계기로 중미 5개국 대사들과 간담회를 열었다고 8월 13일 밝혔다. 한·중미 FTA는 올 8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 동의안이 의결돼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했고, 8월 6일 중미 측에 국내 절차 완료를 통보했다. 자국내 절차를 완료하고 우리 측에 통보한 니카라과는 올 10월 1일 FTA가 발효되고, 나머지 4개국은 자국내 절차를 완료한 후 우리 측에 통보하면 우리나라와 FTA가 발효될 예정이다.

[Read More](#)**3. 한·이스라엘 FTA 최종 타결 車·부품·화장품 관세 즉시 철폐**

‘소재·부품 강국’으로 알려진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의 FTA가 최종 타결됐다. 우리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부품, 섬유, 화장품 등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등 양국 모두 높은 수준의 시장 접근에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8월 21일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한·이스라엘 FTA 협상이 최종 타결됐음을 공식 선언했다. 올 7월 15일 한·이스라엘 정상 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한·이스라엘 FTA를 조속히 타결하기로 했는데, 이를 계기로 협상이 빠르게 진전돼 최종 타결이라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Read More](#)

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SAMC)는
정직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AMC | QUARANTINE & CERTIFICATION TREND

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미생물 등의 배양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등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반사용기준을 신설하며,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식품유형 통합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사용기준을 변경하고, 영·유아식에 사용가능한 식품첨가물 목록 및 천연향료에 사용되는 기원물질 목록을 정비하는 한편, L-글루탐산나트륨 등 6품목에 대한 성분규격 및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의 살균력시험법을 개선하고자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Read More](#)

2.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다음 주요 내용으로 하여,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였다.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 사항 반영, 비타민 A / 비타민 D / 비타민 E의 일일섭취량 단위 추가, 글루코사민의 일일섭취량 변경, 비타민 C의 원료 명칭에서 규격 내용 삭제, 달맞이꽃종자 추출물의 잔류용매 시험법 기재, 가르시니아카모보지아 추출물 및 마리골드꽃추출물의 기능성 내용 문구 변경, 시험법 개정 및 이에 따른 시험법 번호 수정이 개정되었다.

[Read More](#)

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SAMC)는
정직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